

물방울 같은, 실존적 감동 동반한 원숙한 세계관의 위의威儀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 깊이 읽기



이경철 | <문예중앙> 주간, 전 중앙일보 문화부장

신문 방송에서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한쪽에서 불법 대선 자금으로 사회의 썩은 냄새가 푹푹 풍기는가 하면 한쪽에선 그래도 우리 사회 함께 잘 살아가자며 기획, 르포 기사 등을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내보내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 하고 있다.

올 초 나온 김원일 씨의 근작 소설집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을 밤새워 읽었다. 본격소설 작가로서 김 씨의 소설은 솔직히 밤새워, 재미있게, 단숨에 쭉 읽히는 작가가 내게는 아니었다. 그러나 문단 데뷔 40년을 앞두고 환갑을 훌쩍 넘은 나이에 중·단편 5편을 담은 이번 소설집은 우선 작가의 원숙한 세계관과 원숙한 소설기법에 매료돼 쭉 읽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불우 이웃들을 다룬 5편의 깔끔한 TV 기획 르포, 혹은 드라마를 본 감동을 주었다.

아니다. 영상으로 눈물을 자신도 모르게 찢끔 흘리게 하는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 감동을 책을 덮고 나서도 캐나가게 했다. 카메라의 객관적 시각을 문체로 유지하면서도 작가의 치밀하고 집요한 구성으로 인간의 불행과 슬픔을 시간과 공간의 심층적, 중층적 구조 속에서 파헤치며 독자들 스스

로 사회관을 넘어 인생관까지 둘러보게 하는 감동. 활자매체가 영상매체와 비교해 유독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오랜만에 읽어 책을 덮고 난 다음에도 감동과 뿌듯함은 오래 갔다.

“문학의 사회적 책무가 물질주의 속물화로 치닫는 당대 현실과 맞서서 시대의 상처와 고통을 싸안고 고뇌해야 된다고 반성해 온 나날들이었다. (중략) 정상인의 편견과 열악한 환경 속에 소외된 장애인들, 전쟁이 남긴 상처로 아직도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나이 든 세대, 인혁당 사건의 연루자들과 그들 가족에게 이 소설집을 바친다.”

소설집 머리에 붙은 '작가의 말' 일부다. '문학의 사회적 책무'가 식상하고 철지난 말 같지만 반갑고 들쭉하다. 특히 민중문학 쪽에서 '문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던 저 1980년대 문학은 그 예술성을 사회적 책무에 얼마나 압살당해야만 했던가. 그 반대급부로 1990년대 이후에 문학은 또 개인성과 흥미에 그 사회적 책무를 얼마나 방기해 왔던가. 해서 중진작가가 '문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외치며 문학교유의 책무와 위의威儀를 작품 자체로 보여주고 있어 무엇보다 미더웠다.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듯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에 실린 소설들은 "엄혹했던 시대와 비인간화의 악조건 속에서 힘들게 삶을 붙잡아 온 사람들과 죽어간 이들의 이야기"이다.

먼저 단편 2편 중 맨 앞에 실린 〈미화원〉은 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정신지체아 이들의 자립을 바라는 아버지의 정을 그린 작품. 스무 살 넘었는데도 혼자 목욕탕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아들이지만 선량하기 짝이 없어 남이 버린 쓰레기만은 혹 남의 눈에 떨어라 몰래 잘 치우는 아들을 친구의 도움으로 미화원으로 취직시키는 아버지의 정이 잘 드러난, 깔끔한 작품이다.

다음 단편 〈고난 일지〉는 1974년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직후 인혁당 혐의로 체포돼 사형당한 한 남자의 체포와 사형집행까지의 1년간을 다룬 작품. 10년 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혁당 사건은 당시 사법부에서 무죄혐의를 받았으나 유신정권은 진보적 투사들을 인혁당으로 묶어 성급하게 처형한 그 사건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사형수의 행적과 심리를 좇으며 다루고 있다. 불의가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려 정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시대, 죽음을 떼떈하게 받아들이며 죽음이 죽임을 이길 수 있다는 주인공의 자세에서, 이 작품은 불의의 시대 항거한 수많은 투사들을 위해 바쳐진, 당대의 사회과학이나 이념으로 재단되지 않은 실존적 작품으로 읽힐 수 있다.

2002년도 황순원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손풍금〉은 미전향 장기수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들여다보며 그 진실을 복원한 중편. 할아버지를 통해 그의 동생인 미전향 장기수의 삶을 복원하며 해방공간을 중립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려는 논문을 쓰려는 손자와 동생의 삶을 한사코 감추려는 할아버지의 시각을 통해 한 사회주의자의 진정성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가

오롯이 드러나며 평면적으로, 녹록히 평가되기를 거부하는 인생의 깊이를 보여준다.

중편 〈4가 네거리의 축대〉는 6·25 전쟁 중 총에 맞아 고자가 되어 정신지체 증상까지 보이는 한 노인의 삶과 죽음을 다룬 작품. 자신도 홀로 살면서도 IMF로 실직하고 포장마차를 꾸러가는 젊은이의 농아아들까지 키워가며 소외당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더 잘 보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표제 중편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은 고아원에서 자라나 사회에서 독립한 어엿한 처녀이면서도 중증장애인과 결혼한 한 여자를 통해 장애인에 냉담한 우리 사회의 고발을 넘어 실존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을 둘러본 작품. "자신과 가족은 현재 상태에서 영영세세 온전한 정상인으로 살 수 있다는 자만심 아래 비정상인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시설체가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이야말로 정신이 병든 비정상인의 사고다"며 재산과 노동을 털어 비정상인들을 보듬는 주인공을 통해 비정상인인 우리 일반의 그릇된 사고도 감동적으로 치유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굳이 단편과 중편 소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예지 편집을 하며 단편 청탁을 하다보면 2백자 원고지로 환산, 150장 심지어 200장이 넘는 원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어 난감하다. 그레 알 만한 평론가들에게 작품의 길이 외에 단편과 중편 소설을 가르는 기준은 또 무엇이 있겠느냐 물으면 대부분 얼버무리고 만다.

그러나 이번에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을 읽으며 그 구분을 실감할 수 있었다. 2편의 단편소설은 이야기의 구조가 단선적으로 흐른다. 당연히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가 깔끔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중편에서



'문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외치며 문학 고유의 책무를 작품을 통해 다함으로써 김원일 문학의 위대성을 체득한 작가 김원일.

고통과 함께 살 비비며 마침내 끌어안아 독자들에게 실존적 감동을 주는 본격소설의 위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장애인을 소재로 한 두 작품에서도 그 장애인과 함께 덩굴며 그들을 껴안으며 감싸는 표제작에서 이런 감동적인 구절을 얻어낸다.

“물방울 하나가 고요한 수면에 떨어지면 그 중량으로 파문이 겹겹으로 커지며 넓게 퍼지다가 스스로 넉넉한 물에 섞여 자취를 감춘다. 그 이치와 같이 배품이나 선행, 우리네 삶 그 자체도 그런 물방울이리라.”

는 과거와 현재가 오가는가 하면 시점도 뒤바뀌며 중층적 구조로 나가며 이야기의 폭과 깊이를 넓힌다. 독자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해 하며 능동적 글읽기로 이끈다.

해서 작가도 “글의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며 다시 소설의 형식미학을 스스로 환기하고 있다. 굳더더기 자꾸 붙여 길게 물고 늘어지며 황설수설 이야기로 나가 결국 소설의 형식미학을 망가뜨리는 요즘 일부 젊은 작가들에게 이 소설집은 선배로서의 따끔한 충고로도 읽힐 수 있다.

소재적인 측면에서 다섯 작품 중 세 작품이 아직 분단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받은 남자나 6·25 때 불구로 정신장애를 일으킨 노인이나 미전향 장기수나 직·간접적으로 분단의 희생양들이어서 월북한 부친을 둔 작가로서 분단의 비극을 주로 다뤄온 기존 작품과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과거의 작품들과 같이 분단의 고통을 보여주는 데서 뛰어넘어 이번 작품들에서는 그 고통까지도 껴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고통을 낭만적이나 낙관적 이념으로 재단하며 뛰어넘지 않고 그

우리네 삶 그 자체가 그런 물방울일진데, 그런 삶을 좇는 소설이, 문학이 어찌 그런 물방울과 같지 아니 하겠는가. 그런데도 충격적 파문만 일으키며 저만 잘났다는 소설, 아무런 파문도 없이 문자의 뜻과 향기만 망가뜨리는 소설이 판치는 시대, 김씨의 이런 물방울 같은 소설이 있기에 소설은, 본격문학은 인간이 멸종되지 않는 한 끝끝내 살아남아 그 책무를 다할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인간의 깊이를 지키고 인간성을 퍼뜨리는 그런 소설, 문학으로서 말이다. ■■

